

# 9 칼빈의 기도론 : 신앙에 의한 신앙을 위한 기도<sup>1)</sup>

주연욱 교수 / 남서울대학교, 교회사<sup>2)</sup>

## 1. 서 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컬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sup>3)</sup> 칼빈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칼빈에 대한 동시대와 후세대의 증언과 평가는 “칼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기도의 용장(勇將)이었다.”는 것이다.<sup>4)</sup> 칼빈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였고, 또한 스스로

1. 본 논문의 영문제목은 “Calvin’s Prayer Theology – The prayer by the faith and for the faith”이며 「말씀과 실천」(유정우 박사 정년 논문집, 2007)에 실렸던 것을 수정과 정교화 작업을 거쳐 재차 발표한 것임을 밝혀 둠.
2. 평택대학교 역사신학 박사, 성현중앙교회 담임목사, 남서울대학교 외래교수.
3. Acts 9 : 15.
4. Charles Edwards, 전덕애 역, 「칼빈의 기도와 명상」(서울 : 전망사, 1980), p. 1 ; John. H. Leith,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p. 10.

하나님의 사람이고자 힘썼다. 이런 칼빈의 모습은 그의 삶과 신학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별히 칼빈의 기도론에는 그의 신앙과 설교와 삶과 제반 목회사역을 특징짓는 원인(原因)이 나타나 있다.

원래 기도는 어떤 한 사람의 신앙적 특징을 보여 주는 동시에 신앙을 특징짓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칼빈의 경우가 그러하다. 매번 성경공부에 앞서 드렸던 칼빈의 기도에는 그의 신앙고백과 신학적 특성이 나타나 있다. 칼빈은 말씀의 선포자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전에 기도로써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기도로 마쳤다.<sup>5)</sup>

강의가 시작될 때 칼빈이 항상 드리던 기도 :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의 하늘의 지혜에 대한 신비스러움을 깊이 명상하여 진실로 신앙이 두터워져서 당신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덕스러워지게 하소서”.<sup>6)</sup>

칼빈의 기도신학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유익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기도신학에 대한 고찰을 통해 21세기 한국교회의 기도신학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기도의 열심을 말해 왔으나 지금은 기도의 열의마저 식어 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있어서 열심 있는 기도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기도신학에 대

4.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München : Christliche Kaiser Verlag, 1938), p. 149.

5. “The prayer which John Calvin was wont to use at the beginning of his lectures : May the Lord grant, that we may engage in contemplating the mysteries of his heavenly wisdom with really increasing devotion, to his glory and to our edification. Amen.”(Calvin’s Commentaries volume XIII, Hosea, p. 34, Baker book house ; Grands Rapids, Michigan, 1993).

한 새로운 성찰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문기 교수는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최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 시대에도 기도는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간박한 것이 되고 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확실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sup>7)</sup>라고 주장한다.

본 고에서는 칼빈의 신앙론과 관련하여 그의 기도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한국교회의 기도 형태를 반추해 보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성숙을 위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칼빈의 기도론의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1559년)와 「주석」과 칼빈 관련 연구서에 나타난 기도론을 중심으로 칼빈의 신앙론과 관련하여 기도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칼빈의 기도론

### 1) 칼빈의 기도론의 연구 현황

지금까지 칼빈의 신학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에 비해 그의 기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sup>8)</sup> 한국 신학계도 마찬가지이다. 이종성 교수는 자신의 논문 “칼빈의 경건신학”에서 경건과 관련한 기도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수영 교수는 자신의 논문 “깔뱅에 있어서 경건의 개념 : La notion de piété chez Calvin”<sup>9)</sup>에서 경건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예배가 곧 기도로 입증되므로 기도가 깔뱅의 경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훈태 교수는 “칼빈

6. 김문기, “요한 아른트의 생애와 ‘참기독교’에 나온 기도에 관한 이해,”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역음, 「역사신학 논총」 제7집(서울 :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4), p. 212.

7. Charles Edwards, 「칼빈의 기도와 명상」, p. 1.

8. 이수영, 「이수영 목사 회갑 문집 : 개혁신학과 경건」(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pp. 275 – 276.

의 기도론”에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칼빈의 기도론을 요약 소개해 주고 있다.<sup>10)</sup>

## 2) 믿음과 기도

칼빈의 기도론은 「기독교 강요」(1559년 최종판) 제3권 20장에 나타나 있다. 칼빈은 자신의 기도론을 전개하면서 제일 먼저 신앙과 기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점이 칼빈의 기도론의 특징이다. 먼저 「기독교 강요」 제20장 전체 제목에서 신앙과 기도의 관계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기도 :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sup>11)</sup> 즉, 칼빈은 기도를 신앙의 열매로 보았다.<sup>12)</sup>

그리므로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기도를 위한 한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가 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sup>13)</sup>

9. 장훈태, “칼빈의 기도론,”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신학해설」(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pp. 290–314.

1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tr.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Inst.*, III. 20. 1. 이하 *Inst.*로 약(略)함. *Inst.*, III. 20. 1 : Ic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tz and E. Reuss. *Corpus Reformatorum* 2 vol., (Brunsvige :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p. 626. 이하 CO로 약(略)함; 즉, *Inst.*, III. 20 ; CO II, 626. “*De oratione, quae praecipuum est fidei exercitium, et qua Dei beneficia quotidie percipimus.*”

11. Wilhelm Niesel, p. 148.

12. *Inst.*, III. 20. 11 ; CO II, 635. “*Itaque nihil magis consentaneum precationum naturae, quam legem hanc illis praescribi et statui, ne temerer prorumpant, sed fidem praecunt sequantur…… Denique fides est quae imperat quidquid orando conceditur.*”

나아가 칼빈은 신앙에 의하지 않고는 기도를 할 수 없으며 혹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란 생각이 없으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기도라는 행동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기원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오리라고 확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졌다고 믿고 있다. 이것보다는 덜 심한 듯하면서도 역시 허용할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겠다는 한 가지 원칙이 몸에 배어서, 아무 명상도 없이 기도를 중얼거린다. 진정으로 갈망하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원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특히 삼가야 할 일이다.<sup>14)</sup>

이와 같이 칼빈의 기도론은 그의 신앙론<sup>15)</sup>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

13. *Inst.*, III. 20. 6 ; CO II, 630. “Porro quid odiosius aut etiam Deo magis execrandum putamus hac fictione, ubi quis veniam peccatorum postulat, interim aut se peccatorem non esse cogitans, aut certe peccatorem esse non cogitans? nempe qua Deus ipse plane ludibrio habetur. Atqui eiusmodi pravitate, refertum est hominum genus, ut defugendi causa permulta saepe flagitant a Deo, quae citra eius beneficentiam aut sibi aliunde evenire, aut iam apud se residere pro certo iudicant. Aliorum levius delictum esse videtur, sed neque ipsum tolerabile : ut preces sine meditatione demurmarent qui tantum hoc principio imbuti sunt, votis litandum esse Deo. Piis autem maxime cavendum, ne unquam prodeant in conspectum Dei quidquam postulatiri, nisi quod et serio animi affectu exardescunt, et serio ipso simul obtinere cupiunt.”

14. 우리에게 익숙한 관용어가 “칼빈의 신앙론”이므로 본 고에서는 ‘신앙’과 ‘믿음’

어야 한다. 아울러 칼빈의 신앙론의 핵심을 이루는 인간론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인간이해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선이란 전혀 없고 구원의 소망도 인간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through) 구원 얻은 인간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 감추어 두신 구원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어 마침내 기도로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다.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sup>16)</sup>

이때 기도로 구하는 능력 또한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의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믿음이 복음에서 나는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는다(롬 10:14).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증거를 인치는 영, 즉 양자의 영이(롬 8:16) 우리의 정신을 고무시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롬 8:26), 아무 의심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롬 8:15).<sup>17)</sup>

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15. Wilhelm Niesel, p. 148, 재인용.

16. *Inst.*, III. 20. 1; CO II, 625. “(Rom. 10, 14) : sicuti ex evangelio nascitur fides, sic per eam ad invocandum Dei nomen corda nostra formari. Atque hoc ipsum est quod aliquanto ante dixerat(Rom. 8, 26), spiritum adoptionis, qui testimonium evangelii cordibus nostris obsignat, erigere spiritus nostris, ut vota sua exponere Deo audeant, excitare gemitus inenarrabiles, clamare cum fiducia abba, pater.”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또 한 가지 독특한 관점은 인간 편에서의 주관적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과 그에게 구하라고 간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려 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sup>18)</sup>

즉,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 편에서 행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이며, 인간 편에서 행함으로 얻는 유익이다. 그러나 칼빈이 기도에 대한 인간의 행위적 실천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인간의 행위적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칼빈의 신학이 신앙성숙의 능력과 세상변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도 같은 논문에서 명쾌하게 논증한 바 있다.<sup>19)</sup>

그러므로 칼빈의 기도론에 따르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써 인간 편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구원 받지 못했거나, 믿음의 진전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칼빈 당시에도 신비주의자들의 맹목적인 기도행위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하

17. *Inst.*, III. 20. 1; CO II, 625. “Aliqui scire Deum bonorum omnium dominium ac largitorem, qui nos ad se poscendum invitet, ipsumvero nec adire, nec poscere, adeo non prodesset, ut perinde id futurum sit, ac si quis indicatum thesaurum, humi sepultum ac defossum negligat.” ; *Inst.*, III. 20. 3 ; CO II : 626.

18. 추연숙, “칼빈의 신학에서 ‘fides qua creditur’에 관한 연구”(평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참고.

지 않고 성자들을 통한 기도도 행해졌고,<sup>20)</sup> 또 한쪽에서는 기도 무용론(無用論)자들도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기 위해<sup>21)</sup> 기도론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고백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간구는 아무리 뜨겁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지만 얼마나 열심인가? 한국인이라면 목욕재계하고 추운 새벽에 냉수 떠 놓고 북두칠성을 향하여 빌던 한국 전통문화에 나타난 기도 형태를 기억할 것이다. 칼빈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의 무속적 기도행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기도론에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관한 고찰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기도론이 신앙론적 근거 위에 기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 3)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칼빈은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열심 있는 기도의 실천을 주장하였다.<sup>22)</sup>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므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칼빈의 강조점은 열심 있는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19. *Inst.*, III. 20. 21; CO II, 646–647. “si quam illis orationem attribumus, ne iis quidem ipsis somniemus aliam esse rogandi Dei viam, quam Christum, qui solus via est; aut alio nomine Deoesse acceptas eorum preces.”

20. *Inst.*, III. 20. 21; CO II, 648. “Hunc furarent tantum abset ut pastores sanandum vel cohibendum current, ut quaestus ad ore allecti plausu suo comprobent.”

21. *Inst.*, III. 20. 4; CO II, 627.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sup>23)</sup>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이며, 긴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소위 ‘이중지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 자신을 보살펴 주실 것을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며, 교만이며, 게으름이다.<sup>24)</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했다.<sup>25)</sup>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져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칼빈은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든다.<sup>26)</sup>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3년 반 가뭄을 해결하게 될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뒤에 사환을 보내 일곱 번이나 비가 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였다. 칼빈은 엘리야가 반복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태도에 대해 믿음이 부족한 행동으로 보지 않고, 믿음에 열의가 떨어지거나 태만해지지 않도록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 드리는 것을 의무로 알고 취한 엘리야의 뜨거운 신앙적 행동이라고 분석했다.<sup>27)</sup>

결론적으로 칼빈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열의가 식었으면 기도만 식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식은 것을

22. *Inst.*, III. 20. 2; CO II, 625.

23. Ibid.

24. *Inst.*, III. 20. 2; CO II, 626.

25. 1 King 17–18장; James 5:17–18.

26. *Inst.*, III. 20. 3; CO II, 626.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칼빈이 「기독교 강요」 20장 8절에서 여섯 가지로 설명한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을 일구듯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려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뒷으로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욕망과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다. 넷째,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冥想)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sup>27)</sup>

이런 이유로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계을리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시는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배려라고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 간구해서 큰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시도하신다.”<sup>29)</sup>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태한 경향을 깨끗이 씻어 버리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며, 때로 졸거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게으르고 침묵하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 열심 있는

27. *Inst.*, III. 20. 3; CO II, 627.

28. *Inst.*, III. 20. 3; CO II, 627. “quo ita ad se pentendum, flagitandum magno nostro bono nos, alioqui desides et ignavos, exerceat.”

기도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 4)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

칼빈은 “올바른 기도의 법칙”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 20장 4절에서 16절에 걸쳐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칼빈은 올바른 기도의 기준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칼빈신학의 실천적인 성격과 일치하는 개념으로써 단순한 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기도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니젤이 잘 지적하였다. “신앙을 불러일으킨 진리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므로 인간의 모든 것을 어디에선가 밝혀야 한다면 신앙이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관한 교리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기도의 문제를 언급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sup>31)</sup> 이런 점에서 칼빈의 기도론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에 바로고도 유익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칙 : 경외하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인간 편에서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정신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육신적인 근심과 생각을 버리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sup>32)</sup>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과 타락한 인간적인 욕망충족을 위해 하나님께 무조건 조르고 협박하는 식의 잘못된 기도를 예방할 수 있다. 칼빈은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신앙에 서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도 친구들끼리 농담과 잡담을 할 때보다 기

29. *Inst.*, III. 20. 3; CO II, 627.

30. Wilhelm Niesel, p. 149.

31. *Inst.*, III. 20. 4; CO II, 627.

도 중에 나타나는 불법한 욕망을 더 관대하게 벼려두는 사람들이 있다.”<sup>33)</sup>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친절을 조롱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신다. 칼빈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34)</sup>

둘째 법칙 :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 하라.<sup>35)</sup> 기도자의 마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칼빈이 지적한 대로 형식적이고 단순히 의무를 때우는 식의 기도는 응답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하며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6)</sup>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가 자신을 위하는 기도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여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는 태도는 어리석다. 목마른 사람처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의 방법이 된다. 따라서 칼빈은 바른 기도에는 자기부인(自己否認)의 회개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37)</sup>

물론 칼빈은 항상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인정

32. *Inst.*, III. 20. 5 ; CO II, 629. “Sicuti hodie, ut nuper attigi, maiorem licentiam illicitis suis cupiditatibus hominrs in precibus indulgent, quam si p̄qres cum p̄qribus iocose fabularentur.”

33. *Inst.*, III. 20. 5 ; CO II, 629.

34. *Ibid.*

35. *Inst.*, III. 20. 5 ; CO II, 629-630. “Esto et altera lex, ut rogando semper inopiam nostram vere sentimus, ac serio cogintantes omnibus quae petumus nos indigere, serium, imo ardentem imp̄trandi affectum iungamus cum ipsa precatione.”;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r. Henry Beveridge, Esq(Grand Rapids : Baker Books, 1993), vol. XIX, Acts. 12:6. 이하 *Comm.*으로 표기함.

36. *Inst.*, III. 20. 7 ; CO II, 631.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쉬지 않고”(무시로, 항상, *semper*), “무릎을 끓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sup>40)</sup>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셋째 법칙 : 자기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신뢰를 버리고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sup>41)</sup> 칼빈은 그의 신앙론에서 ‘자기부정’과 ‘죽임’(*morficatio*)과 ‘살림’(*vivicatio*)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도에 있어서 자기부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 ‘죽임’(*morficatio*)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도 할 때 무릎을 끓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겸손의 상징적 행동으로써 몸의 외형적인 단련이 마음의 연약성(인간 편에서는 강한 모습일 수도 있다.)을 돋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는 겸손은 가식이요 기도를 드려도 헛수고일 뿐이다.<sup>42)</sup>

넷째 법칙 :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sup>43)</sup> 왜냐하면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해서 의심이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44)</sup>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은 의심과 공포와 싸워야

37. *Inst.*, III. 20. 7 ; CO II, 630 ; *Inst.*, III. 20. 50 ; CO II, 676.

38. *Comm.*, Acts. 9:40.

39. *Comm.*, Acts. 7:59-60. “we have greatest need to call upon God in the last conflict, which is the hardest.” ; “He cried indeed with a loud voice.”

40. *Inst.*, III. 20. 8 ; CO II, 631 ; *Inst.*, III. 20. 9 ; CO II, 632.

41. *Comm.*, Acts. 9:40.

42. *Inst.*, III. 20. 11 ; CO II, 634.

43. *Inst.*, III. 20. 11 ; CO II, 634. “Fiduciam vero non intelligio, quae solutam omni anxietudins sensu mentem suavi et perfecta quiete demulceat.” ; *Inst.*, III. 20. 16 ; CO II, 643. “Innumera eius genitris exempla occurrunt in scripturis, ex quibus patet fidem sanctorum saepe mixtam fuisse dubitationibus agitatam, ut credendo et sperando aliquid tamen infidelitatis proderent.”

한다. 이것이 칼빈의 성화론의 주제가 된다.<sup>45)</sup> 따라서 칼빈의 기도론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과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으며,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겨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 5) 기도와 선행의 관계

경건한 삶의 연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된다. 그래서 경건한 삶의 실천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과 인간의 행위의 믿음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sup>46)</sup> 칼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으므로 우리의 전 생활에는 어떤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sup>47)</sup>고 주장한다. 칼빈의 신학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할 수 없도록 묶여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된 경건의 실천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 자라며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臨)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칼빈은 디모데전서 4:8을 주석하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니라”는 구절에 대해 “우리는 경건에는 인간에 대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뿐만 아니라 신앙과 기도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sup>48)</sup>고 했다. 칼빈의 이 교훈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기도를

44.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나타난 선행의 위치와 중요성”(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참고.

45. Alfred Göhler, *Calvin's Lehre von der Heiligung*(München : Christliche Kaiser Verlag, 1934), p. 121.

46. *Inst.*, III. 19. 2 ; CO II, 614.

47. *Comm.*, 1Timothy, 4:8.

많이 하고 잘한다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칼빈은 사도행전 10:1~4 주석에서 고넬료의 선행과 믿음의 관계를 예로 들어 기도와 선행(善行)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넬료는 로마군 백부장이면서 유대인 이웃을 선대(善待)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덕과 선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맙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도 더 위대한 은사를 쌓아 주시고 풍요하게 해 주신다는 결론을 얻는다.”<sup>49)</sup> 칼빈은 하나님은 선한 삶과 기도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촉진 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에서 선한 삶의 열매가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칼빈의 기도론에서 실천적 교훈

### 1) 기도 훈련의 의의

기도는 신앙 훈련의 한 부분이지만<sup>50)</sup> 실제로 기도 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의 반영이며 신앙 훈련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 받는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교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를 왜곡시키고 개인의 삶을 망가뜨린다. 하나님에 받지 않는 기도는 혗수고에 불과하거나 교만의 수단으로 오용되어 구원에 방해꾼 작용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삶

48. *Comm.*, Acts, 10:1-4.

49. *Inst.*, III. 20. 50 ; CO II, 676.

으로 끌고 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올바른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 2) 개인기도

칼빈은 “개인기도는 원래 탄원과 간구에 집중되지만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샤머니즘 기도의 다른 점은 감사와 찬양의 있고, 없음일 것이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참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참만족은 없다. 그렇다고 날마다 거지처럼 혀기져서 손 내밀고 앓아 있는 인생일 수는 없다. 칼빈은 기도론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로 구하라고 가르쳤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만족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 받은 이후까지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기도한다. 칼빈의 이 영감 있는 개인기도에 대한 통찰력이 「기독교 강요」 3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다.<sup>51)</sup>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는커녕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계속적으로 내어 보이는 것이 기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교훈이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침묵은 곧 원망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sup>52)</sup>

50. *Inst.*, III. 20. 28; CO II, 654.

## 3) 공중기도

칼빈은 공중기도(公衆祈禱)가 개인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3권 20장 28절에 개인기도를 앞에 기록하고 29절에 공중기도를 기록한 순서에서도 알 수 있다. 칼빈이 말하는 공중기도의 형식은 한국교회에서 행하는 특별기도회(prayer concert)를 의미하나, 그 기도회에서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또는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할 경우에 필요한 대표 기도자에게 관련되는 신앙적, 실천적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먼저 유창한 말로 자기를 자랑하려는 유혹을 극복하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위선이며, 화려한 장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면서 뜻도 없이 중얼거린다고 지적한다.<sup>53)</sup> 이런 기도방법은 지금도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채택하는 방법이며, 이방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유치한 조롱을 금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들리는 기도는 진실해야 하며 마음에서 우리 나는 기도라야 하기 때문이다.”<sup>54)</sup>라고 잘라 말했다.

칼빈은 공중기도가 개인기도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와 관계된다는 점을 명쾌하게 논증한다. “신자들이 거룩한 집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다.”<sup>55)</sup> 칼빈은 하나님은 공중기도의 유익을 인정하신다고 주장한다. 즉, 공중기도를 통해 믿음의 단결을 도모하며 믿음의 사회성을 조성하시기를 기뻐하시므로 교회가 공중기도

51. *Inst.*, III. 20. 28; CO II, 654. “dum percepta Domini liberalitate datum sibi in os canticum novum praedicat. Quo scilicet innuit, malignum esse silentium, si quod eius beneficium sine laude praeterimus.”

52. *Inst.*, III. 20. 29; CO II, 656-657.

53. *Inst.*, III. 20. 29; CO II, 634.

54. *Ibid.*

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강조하고 있다.

#### 4) 기도 용어문제

칼빈은 개인기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중기도는 특별히 회중이 다 아는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온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한다.<sup>55)</sup>

칼빈은 방언기도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다. 칼빈 자신이 방언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방언기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sup>56)</sup> 방언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방언기도를 사용하되 남용하거나 방언이 아닌 것을 방언처럼 흉내 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별히 공중기도에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단언한다.<sup>57)</sup> 칼빈은 방언의 초이성적 능력과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sup>58)</sup>

그런데 개인기도할 때는 방언이 필요치 않다는 칼빈의 견해는 필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소리(tongue)라도 분명한 뜻(meaning)을 하나님께 전하는 방언이 있으므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특별히 방언기도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할 수 있고, 남이 옆에 있어도 듣는 것을 피하여(그 사람이 통역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며, 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담임목사가 방언기도를 잘하면 교회 안에 방언으로 인한 신비주의

55. *Inst.*, III. 20. 33 ; CO II, 659.

56. *Inst.*, III. 20. 33 ; CO II, 660.

57. *Inst.*, III. 20. 33 ; CO II, 660. “nulla ratione fieri posse, nec in publica oratione, nec in privata, quam lingua sine animo summopere Deo displiceat.”

58. *Inst.*, III. 20. 33 ; CO II, 660. 칼빈의 방언기도에 대한 설명 참고.

의 등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방언기도 훈련을 시켜서 교회 안에 영적 신비감을 더할 수 있다고 본다.

#### 5) 기도시간

현대인은 바쁘다. 피곤하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풍조로 기도할 시간도 마음도 잃어 가고 있다. 칼빈은 믿음의 실천을 위해 심령의 믿음과 함께 인간적 연약함과 태만의 극복을 위해 보조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sup>59)</sup> “우리는 연약하고 나태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도의 실천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up>60)</sup> 하루 중 적당한 시간까지 알려 주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음식을 먹으려 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음식을 먹고 난 후, 밤에 자려고 할 때”가 좋다고 말한다.<sup>61)</sup>

그러나 시간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sup>62)</sup> 다만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일종의 훈련이며, 따라서 이 연약함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한다.”<sup>63)</sup>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새벽기도, 금요심야기도, 사순절 40일 특별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귀한 일이다. 기도원에 모여 집단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았기에 지금은 거의 쇠퇴

59. *Inst.*, III. 20. 50 ; CO II, 676. “quando tamen ea nostra est imbecillitas, multis adminiculis sustentari.”

60. *Inst.*, III. 20. 50 ; CO II, 676. “is noster torpor, qui calcaribus excitari opus habeat, convenit ut sibi quisque nostrum exercitationis casua peculiares horas constituant.”

61. *Inst.*, III. 20. 50 ; CO II, 676.

62. *Ibid.*

63. *Inst.*, III. 20. 50 ; CO II, 676. “in caeteras horas defuncti nobis videamur ; sed imbecillitatis nostrae paedagogia, qua sic exerceatur et eubinde stimuletur.”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칼빈의 기도의 열정에 비춰 볼 때 칼빈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교회가 건전한 기도운동을 이어 갈 필요가 절실히 있다고 본다. 바쁜 교인들에게 형편에 맞는 기도 일과를 적절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칼빈의 기도론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신학적 통찰력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 6) 인내

기도 응답은 시간과 방법 면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인 사항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한다. 기도하다가 인내심을 시험 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연단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다. 복종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는 악한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면서 기다릴 일이다.

칼빈은 주기도문 해설을 통해 자신의 기도론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는 주기도문 해설을 요약, 정리해서 말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법과 장소 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도록 일임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해야 한다.<sup>65)</sup>

## 4. 결 론

칼빈의 기도론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반영이며, 기도를 행

64. *Inst.*, III, 20, 50; CO II, 677.

동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써의 믿음과 인간편에서의 행함으로써의 믿음을 분리하지 않는 점과 일치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론에 머물거나 인간적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을 배제한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칼빈의 기도론은 신앙 훈련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삶에 적용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 「주석」, 「설교」 등에서 일관되게 기도의 중요성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논한 기도론은 역사적으로 탁월한 기도론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고에서는 칼빈의 신앙론과 관련하여 기도론을 분석함으로써 칼빈의 신학적 특색인 실천적 신앙에 유익한 기도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칼빈의 신학에 관한 방대한 연구에 비해 기도론은 연구가 일천함을 지적하였고, 2장에서 그의 기도론의 일반적 특색을 주제별로 소개하였다. 3장에서 기도론의 실천적 방법을 소개하여 한국교회 실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칼빈은 자신이 신학자인 동시에 평생 동안 현장 목회자로 살았으며, 기도의 모범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설교의 흥수 속에서 감동이 있는 설교는 점점 희귀해져 가는 시점에 칼빈과 같은 신학적 통찰과 기도의 실천이 더욱 그리운 시대라 할 수 있다. 칼빈이 자신의 기도론에서 주장하고 있는바 기도가 신앙성숙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라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실천적 방법론의 탐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칼빈의 기도론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될 실천적 기도훈련의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Primary Sources

- Calvinus, Ioan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tz, and E. Reuss, 59 vols., Corpus Reformatorum ; Brunsvige :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 ,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Inst., 1559)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Grand Rapids ; Collins, 1986.
- , *Commentaries*, Hosea, Calvin's Commentaries Vol. XIII,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3.
- , *Commentaries*, Acts, Calvin's Commentaries Vol. XVIII, XIX,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3.
- , *Commentaries*, I & II Timothy, Calvin's Commentaries Vol. XXI,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3.

### 2. Secondary sources

- 이수영, 「개혁신학과 경건」,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 이종성, 「칼빈의 생애와 사상」, 이종성 저작전집 18, 서울 :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 한국칼빈학회 역음, 「칼빈신학 해설」,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Göhler, A. *Calvin's Lehre von der Heiligung*. München : Christliche Kaifer Verlag, 1934.
- Leith, H. John,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 Christliche Kaifer Verlag, 1938.